

사회비판이론(critical social theory)으로서의 하버마스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

조 영 아**

주제분류 사회철학, 비판이론, 사회비판이론

주요어 사회비판이론, 칼훈,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경험적 해명, 규범적 대안

요약문

사회비판이론(critical social theory)이 사회의 병리현상을 경험적으로 해명하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사회비판이론이 사회의 병리를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인 규범 제시에만 치중한다면 역사와 무관한 보편주의 이론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비판이론은 상대주의의 극단과 초역사적인 보편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경험적 해명의 성격과 규범적 성격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이러한 사회비판이론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 사회비판이론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칼훈(Craig Calhoun)이 제안한 사회비판이론의 조건을 설명하고, 이어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다. 그런 다음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대한 칼훈의 비판을 검토하고, 그런 비판에 관해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사회비판이론일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도입

칸트(Immanuel Kant)에게 비판은 경험론 및 합리론의 철학적 주장의 타당성에 관한 반성적 검토 또는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의 인간 능력의 한계에 관한 반성적 검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반성은 해방을 촉발한다. 왜냐하면 사회 세계의 구조는 마음 자체의 선형적 구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체는 후자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이성이 그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고, 자신의 한계를 안 이후에야 정해진 과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¹⁾ 이렇듯 칸트의 방식으로 이해된 비판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힌다는 의미에서 해명적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어떤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경험적인 성격을 띤다. 이런 관점의 비판을 함축하는 사회비판이론(critical social theory)²⁾은 자연에 공감하는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대립하는 자본주의나 도구적인 이성 사이의 긴장 또는 문명과 그것의 문화적 산물 사이의 긴장을 폭로한다.³⁾

하지만 사회비판이론은 이러한 폭로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병리에 대한 극복 방안, 즉 사회가 사회의 병리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1) Shalin(1992), 239쪽.

2) 비판 이론(critical theory)이라는 용어는 흔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적 경향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서 호르크하이머가 전통 이론과 구별해서 사회 연구소의 이론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고지현 외(2012), 17쪽. 이와 달리 사회비판이론(critical social theory)은 지식의 해방적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암묵적인 목적을 지닌 다학제적(多學際的) 틀(multidisciplinary framework)로서, 특히 켈혼은 푸코,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의 논의를 비롯해, 여성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등 최근의 사회적 이슈까지 아우르는 논의를 포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비판이론(critical theory)과 사회이론(social theory)을 결합한 사회비판이론을 중요하게 다룬다. Leonardo(2004), 11-12쪽.

3) Calhoun(1995), 18쪽.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비판의 정신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에서부터 호네프트(Axel Honneth)까지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사회의 병리를 폭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계기를 갖기에 말이다. 결국 사회비판이론은 사회의 병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러한 병리를 경험적으로 해명한다는 점에서 경험적 성격을 지녀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병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⁴⁾ 이런 경험적 계기와 규범적 계기 모두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회비판이론은 두 계기 중 한쪽에만 치우치게 됨으로써, 극단적인 상대주의 혹은 초역사적인 보편주의로 경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비판이론이 경험적 계기, 즉 문화, 사회적 차이나 역사적인 특수성에 근거한 사회의 병리 현상을 포착하는 것만 몰두하게 되면, 각각의 문화·사회적 맥락에 따른 극단적인 상대주의 이론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사회비판이론이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규범 제시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문화적 차이나 역사적 특수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초역사적인 보편주의 이론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사회비판이론의 이러한 계기를 염두에 두고 하버마스(Habermas)의 비판이론이 사회비판이론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켈훈(Calhoun)⁵⁾이 제안한 사회비판이론의 조건을 설

4) 사회적인 것이 총체적 사물화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규범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종합이어야 한다. 서도식(2006), 29쪽.

5) 켈훈은 하버마스의 아류 학자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사회학자로서 독일 사회학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이론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곤 한다. 특히 그는 비판 이론 및 사회 이론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면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여러 비판이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수용하는 한편, 그 고유의 해석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이나 주장이 세계의 역사, 문화, 사회학적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기에 전통적인 비판이론의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사회비판이론은 중요한

명하고, 이어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다. 그런 다음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대한 켈훈의 비판을 검토하고, 그런 비판에 관해 하버마스 이론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사회비판이론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다.

2. 켈훈의 사회비판이론의 조건

켈훈은 그의 책 『Critical Social Theory』에서 사회비판이론에 대한 네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기존의 사태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규명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사회적 행동에 관한 적극적인 함축을 제공하면서 이론가의 동시대적 사회 세계에 비판적으로 참여함.
2. 이론가 스스로의 지적 활동이 의존하는 (사회적이면서 개인적인) 역사 문화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인 설명.
3. 이론가의 이해를 구성하는 범주 및 개념 틀을 비롯해, 그런 개념 틀에 대한 역사적 구성에 관한 끊임없는 비판적 재검토.
4. 사회에 관한 다른 설명 작업에 대해 장단점을 제시하고, 더 강한 토대위에 그러한 설명의 통찰력을 통합시키는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그러한 설명에 비판적으로 직면함.⁶⁾

켈훈에 의하면, “이상적으로 사회비판이론은 그것 고유의 역사 문화적 생산조건에 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하고, 그런 조건의 약점을 설명하고, 그 조건의 성취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경쟁이론들에 관한 현주소를 제시해야 하고, 사회비판이론 고유의 구성에 있어 사용된 범주에 관한 지속

의의를 지닌다. 켈훈의 비판이론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베일하르츠(Beilharz 1998)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Calhoun(1995), 35쪽.

적인 비판적 반성에 참여해야 하고, 사회적 행동을 위한 적극적인 함축을 비롯해 기존의 사회 조건에 관한 비판적 설명을 발전시켜야 한다.”⁷⁾ 이렇듯 사회비판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⁸⁾ 역사적으로 특수하면서도,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보편적 규범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칼훈은 이러한 사회비판이론의 중심에 내재적 비판(immanent critique) 개념이 놓여있다고 본다. 내재적 비판이란 기존의 사유 범주 내에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그것의 문제 및 아직 인식되지 않은 가능성을 다양한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다.⁹⁾ 내재적 비판과 달리 외재적 비판(external critique)은 기존의 사유 범주를 넘어 어떤 특정한 절대적인 기준에 기대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외재적 비판의 관점에 의거한 사회비판이론은 초역사적인 비판이론이 되어 문화적 차이 및 역사적 특수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반면 내재적 비판은 그 비판의 관점을 사회 내부에 놓음으로써, 즉 비판의 대상들의 내적 긴장 속에서 그것들을 파악함으로써 경험적,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 및 차이를 포섭하는 계기를 마련한다.¹⁰⁾

이러한 내재적 비판의 관점을 갖춘 사회비판이론이 초역사적인 비판이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론은 항상 경쟁하는 성향이나 가능성에 열려있어야 한다. 이점에서 사회비판이론은 정적인(static) 보편 규범보다 역동적인(dynamic) 보편 규범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정적인 보편 규범은 역사,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대상에 적용 가능한 보편 규범으로서 그 외

7) Calhoun(1995), 123쪽.

8) Calhoun(1995), 21쪽.

9) Calhoun(1995), 23쪽.

10) 내재적 비판에 대한 관념이 제안하는 바에 의하면, 세계 속의 조건은 비판적 분석을 위한 가능성을 연다. Calhoun(1995), p.186.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포함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다. Beilharz(1998), 100쪽.

의 다른 가능성이나 성향에 대해 닫혀 있다. 반면 역동적인 보편 규범은 동시대의 역사,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대상에 적용 가능하면서 동시에 여러 변화에 따른 다른 가능성이나 성향에 항상 열려 있으며, 그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¹¹⁾ 만약 사회비판이론이 정적인 보편 규범을 내놓게 된다면, 그것은 제시된 규범의 보편적인 성격으로 인해 역사에 민감하지 못한 초역사적인 비판이론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비판이론은 역동적 보편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동시대의 사람들 모두에게 사회의 병리를 헤쳐 나아가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러한 지침이 사회적,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끊임없이 반성에 직면함으로써 변화할 가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역동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정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해에 대한 절차적 접근(a processual approach to understanding)이 요청된다.¹²⁾ 절차의 상호주관성 확보를 통해 상대주의나 절대주의의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다.

3.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하버마스는 근대사회의 병리를 체계와 생활세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¹³⁾ 하버마스에 의하면, 합리성은 목적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체계영역에서 작동하고, 성공지향적 행위를 수반하며, 주로 기능적이고 탈

11) 켈훈에 의하면, 좋은 이론은 닫힌 이론이 아니라 그 자체로 경쟁하는 성향이나 가능성의 역할에 내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Calhoun(1995), 88쪽.

12) Calhoun(1995), 91쪽.

13) 하버마스는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두 차원에서 동시에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제어하고, 생활세계와 체계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원식(2012), 207-219쪽.

규범적 측면에서 행위를 통합하는 반면에, 후자는 생활세계에서 작동하고, 상호이해지향적 행위를 수반하며, 규범적 측면에서 행위를 통합한다.¹⁴⁾

특히 하버마스는 근대의 합리화를 목적합리성의 증대(특히 체계의 복잡성 증대)뿐 아니라, 의사소통합리성의 증대(생활세계의 합리화)로서 제시한다.¹⁵⁾ 하버마스는 이와 더불어 근대화의 한계를 체계가 고유한 영역을 벗어나 생활세계에 침투했다는 점, 즉, 의사소통적 구조를 갖는 삶의 영역들이 독립적인 행위체계들의 명령 아래에 놓이게 된 점에서 찾는다. 이처럼 체계 매커니즘이 생활세계의 영역에서도 작용하게 됨으로써 근대의 병리가 발생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한다.

중국에 체계 매커니즘은 합의에 의존한 행위조정이 대체될 수 없는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도 사회통합의 형식을 밀어낸다. 그러면 생활세계의 **부속화(Mediatisierung)**는 식민지화(Kolonialisierung)의 형태를 띤다.¹⁶⁾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복지국가의 수혜자와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물화현상들의 근저”에서도 발견된다.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경제와 행정의 체계 복잡성의 증대에 따라 생활세계 내의 의사소통행위가 전략적 행위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나 정치적인 공론이 비판적인 잠재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4) 양화식(2008), 330쪽.

15) 선우현(1996), 391쪽.

16) 위르겐 하버마스(2006), 307쪽.

17) 박정호 외(2006), 221쪽.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전통적 생활형식들의 파괴가 전체 사회의 기능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상쇄될 수 없을 때 등장한다. 그러니까 사적 삶과 문화적·정치적 생활형식의 구성요소들이—목표, 인간관계와 서비스, 그리고 삶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금전적 재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결정, 의무와 권리, 책임과 의존관계의 관료제화를 통해서—생활세계의 상징적 구조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림에 따라, 화폐와 권력이란 매체들의 기능적 제약성이 가시화된다.¹⁸⁾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생활세계적 측면들과 체계적 측면들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시장경제와 관료국가의 발전을 통하여 이러한 측면들이 서로서로 분리되었다. 여기서 하버마스는 사회의 진화를 생활세계의 구조적 분화와 생활세계로부터의 체계의 분리 모두를 통해 설명한다. 즉, 하버마스에 의하면, “체계의 진화는 사회의 조정능력의 증가에서 측정되는 반면에, 문화, 사회, 인성의 분화는 상징적으로 구조화된 생활세계의 발달단계를 보여준다.”¹⁹⁾ 합리화된 생활세계가 경제와 국가행정이라는 기능적 하위체계의 발생과 성장을 가져왔지만, 이 하위체계의 비대화가 결국에는 생활세계 영역으로 침투하여 생활세계를 식민화한다.²⁰⁾ 달리 말해, 행위조정이 언어로부터 화폐와 권력과 같은 조정매체로 전환됨을 말하며, 이해지향의 상호작용이 생활 세계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²¹⁾ 요컨대, 하버마스에 의하면, 생활세계가 도구적 하위체계들에 의해 식민화되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지닌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당했고, 이것이 바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이자 근대사회의 병리현상의 원인이다.²²⁾

18) 위르겐 하버마스(2006), 499쪽.

19) 위르겐 하버마스(2006), 243쪽.

20) 양화식(2008), 342쪽.

21) 위르겐 하버마스(2006), 287쪽.

22) 하버마스는 이러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이런 식으로 근대사회의 병리를 진단하고 난 이후 하버마스는 이런 병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형식적으로 조직된 행위영역들이 형성되기 전에 세계상의 합리화의 결과로 먼저 발달했어야 하는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근대성의 자기이해에 반영되어 있는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만이, 생활세계가 자립화된 체계들의 고유역학에 의해 부속화되는 것에 저항할 때 분노만이 아니라 내적논리를 제공해준다. 반역하는 자연의 무력한 분노를 넘어서 수 있게 하는 것이다.²³⁾

하버마스에 따르면, 생활 세계의 식민지화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생활 세계에 실현될 때, 즉, 의사소통적 행위에 내포된 타당성 요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더욱 인간적이고 해방된 사회가 된다.²⁴⁾ 간단히 말해, 하버마스는 자율적인 주체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회규범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 시켜서, 생활세계를 복원하면 근대화의 병리를 극복하고, 따라서 근대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하버마스는 기존의 사회의 병리현상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상과 그것에 대한 정당화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적절한 평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절에서 켈훈이 지적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의 문제점과 그런 문제점에 대해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볼 것이다.

병리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며, 여기에서 현대사회의 핵심적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식(2009), 103쪽.

23) 위르겐 하버마스(2006), 515쪽.

24) 박정호 외(2006), 221쪽.

4.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대한 켈혼의 비판과 그에 대한 대답

켈혼은 그의 책 『Critical Social Theory』에서 사회비판이론의 조건, 특징,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앞서 살펴본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문제가 기존에 이미 언급된 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사회비판이론적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에 도전하는 켈혼의 문제제기에 답할 수 있는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약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그러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을 소극적으로나마 입증하는 셈이 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대한 켈혼의 비판과 더불어 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자.

첫째, 켈혼에 의하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²⁵⁾ 정확히 말해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차이에 관해 무관심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은 비판의 규범적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요청된 이상적인 대화상황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이상적인 대화 상황은 비판의 척도로서 그것에 어긋난 것을 교정하게 할 수 있게 한다.²⁶⁾ 어긋난 것을 교정하기 위한 이상적인 모든 대화에는 암묵적인 규범이 작동하고 있으며 ‘모든’ 대화에 작동하고 있는 그런 규범은 보편적인 규범이다. 이런 암묵적인 보편적 규범이 이상적인 대화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포괄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버마스가 상호이해의 의사소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주체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주

25) Calhoun(1995), 33쪽, 72-85쪽, 217쪽.

26) 정호근(1996), 131쪽.

관성을 통해 도덕규범을 정당화한다고 해도, 그것은 탈맥락화 된 자율적인 개인에게 도덕 판단을 맡긴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특수성과 문화적인 차이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수용하는 하버마스의 이론은 여성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²⁷⁾ 왜냐하면 길리건에 의하면, 콜버그 등의 도덕발달 이론은 남성들로 구성된 대표집단을 토대로 해서 이론을 구성한 다음, 그 이론을 통해 여성들을 평가하여 여성들을 도덕영역에서 벗어나거나 낮은 도덕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²⁸⁾ 이에 길리건은 콜버그의 이론을 비롯한 기존 도덕발달이론은 남성 편향적이고 여성의 도덕경험이나 여성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⁹⁾ 이러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통해 도덕 담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이상 하버마스는 여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차이를 포섭하지 못하고 남성적인 주체의 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버마스가 차이에 관해 무관심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타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 비판은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총체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과 기술의 도구적 이성은 이성 자체에 대한 회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근대의 신비나 마술로 부터의 이성의 해방의 기획을 다시금 부자유로 결말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호 주관성에 의거한 이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이성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적인 이성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27) 하버마스는 그의 책 『도덕의식과 의사소통적 행위』에서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근거로 도덕철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오명근(1993a, 1993b) 참조.

28) 김 진(2005), 76쪽.

29) 김 진(2011), 190쪽.

의하면, 이성의 능력은 단순히 주관적인 인식이나 사유능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칙을 인지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객관적인 규칙을 인지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라 함은 상대할 타자를 전제하는, 즉 상호성의 관점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능력임을 의미한다. 상호이해의 상호주관성의 이념은, 주체-대상 사이의 주체동일성의 이념을 벗어나 주체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인정함’³⁰⁾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주체와 주체 사이의 대칭적 관계에 작용하는 것이고, 인정이 주체와 타자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에 대해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자는 후자처럼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지니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를 유사한 것으로 혹은 서로 다른 것으로 상호간에 인정할 때, 그들은 더욱 실질적인 방식으로 호네트에 의해 강조된 상호주관적인 인정과 도덕성간의 내적 연관성을 파악한다.³¹⁾ 이와 관련해 어만(Erman)은 도덕성은 언어를 미리 전제하고, 언어는 상호주관성을 미리 전제한다³²⁾고 하면서 의사소통적 담론 윤리와 상호주관적 인정이 서로 화해 가능함을 주장한다. 이렇듯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인정의 이념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사소통 합리성에 근거해 제시되는 규범은 인정을 통해 포섭되는 차이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30) 호네트는 개인의 정체성 발달의 세 단계 및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상호주관적인 인정의 세 형태 등에 관한 구조적 내적 연관성을 통해 그의 비판이론을 전개한다. ... 상호주관적 인정(intersubjective recognition)에 관한 이런 내적으로 미묘하게 구분된 설명의 강한 힘은, 그러한 설명이 그룹의 특수성과 차이의 인정(the recognition of group's specificity and difference)을 요구한 최근의 사회 운동을 분석함에 특히나 잘 들어맞고, 약 200년 동안 인종, 민족성, 국적, 젠더, 물리적 능력 등에 근거해 이전에 배제된 인정(Recognition), 재분배(Redistribution), 민주주의(Democracy)를 위한 사회적인 사건에서 평등한 역할을 강하게 요구한 그런 운동을 분석함에 잘 들어맞는다는 점에 있다. Zurn(2005), 93쪽.

31) Erman(2006), 387쪽.

32) Erman(2006), 396쪽.

이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모든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에 답변하려는 개방성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하고, 토론의 참가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속일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토론의 상대자를 판단력 있고, 성실한 주체로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³³⁾ 아울러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어떤 금기도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질문에서 제외되는 특권적 불가침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대화에서 인종적 선입견이나 계급적 선입견에 의해 다른 사람의 말을 막기 위한 억압적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³⁴⁾ 이런 의미에서 타당성 주장은 비판에 열려 있다. 왜냐하면 타당성 주장은 구성원들에 의해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된 세계 개념에 근거해 모든 특수한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 추상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³⁵⁾ 이렇듯 타당한 주장이 비판에 열려 있는 한에서 여성도 대화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여성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장이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열릴 수 있다.

또한 하버마스에 의하면, “자아가 여러 가지 자기 관계를 갖는 것은—자신에 대해 다른 논증 참여자의 태도를 취함으로써—자신을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로서 마주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³⁶⁾. 이를 통해 여성은 스스로에 대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가진 주체로서 대화의 참여자임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남성은 “반대자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면서 비판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고려하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적 관계를 획득하게 된다.³⁷⁾” 이로써 남성은 여성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찰적 자기 관계는 행위자의

33) 박정호 외(2006), 211쪽.

34) 박정호 외(2006), 211쪽.

35) Czobor-Luppp(2008), 433쪽.

36) 위르겐 하버마스(2006), 129쪽.

37) 위르겐 하버마스(2006), 128쪽.

책임능력의 기초가 된다. 책임능력을 가진 행위자는 직접적으로 도덕과 관련된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인지적 발언 및 표출적 발언에서도 자기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³⁸⁾ 남성과 여성 모두 언어 사용자로서 의사소통 합리성을 지닐 것이기에 이유를 묻고 답하는 사회적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계기와 역지사지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칼훈에 의하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전통을 수용하지 못한다.³⁹⁾ 하버마스는 이해지향적인 행동을 통해서 합리주의의 계몽주의 기획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한다. 다시 말해, 상호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주체중심의 이성애 구속되어 있던 계몽주의적 이성을 구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계몽의 이성은 개인들을 전통적인 권위, 신비, 마술로부터 해방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와 유사하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은 주체와 객체의 대립 사이에서 주체중심적인 이성의 권위에서 벗어나도록 이성의 해방적 기능을 회복하게 한다. 이렇듯 하버마스의 기획의 근간인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는 개인들을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목 하에 지적인 삶에 있어 중요한 전통과 진보적인 대중의 행동을 위한 근거로서의 전통적 공동체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이론이 전통과의 단절을 의도하거나 전통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대화 내에서 반성된 전통의 지속적인 교정이라는 상태가 문화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⁴⁰⁾ 이는 전통과의 단절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을 수용하고 보존하는 계기이다. 달리 말해, 과학과 기술로 대변되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훼손된 전통을 회복할 수

38) 위르겐 하버마스(2006), 130쪽.

39) Calhoun(1995), 206쪽.

40)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 합리성에 근거한 이해지향적 행위를 통해서 생활세계의 문화적 재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그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문화라는 구조적 요소와 관련해서, 이해지향적 행위를 통해 문화적 지식의 전송, 비판, 획득과 같은 문화적 재생산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2006), 232쪽.

있는 가능성을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포함한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견 교환의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이 혹은 어딘가에 정박하지 않은 채로 무정부 상태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의견 교환을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이고 타당한 내용이 요구될 것인데, 그런 내용을 구성하는 근원은 다름 아닌 전통이나 관습이 될 것이다. 이렇듯 의사소통 합리성은 전통을 보존하는 계기를 포함한다. 아울러 생활세계는 그 속에서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참여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수용되고 정당화된 것으로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지평이자 문화적 자명성의 저장소이다.⁴¹⁾ 전통을 담지하고 있는 대화의 장으로서의 생활세계를 근간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대화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전통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셋째, 칼훈에 의하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생활세계를 이상화시킨다.⁴²⁾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는 모든 의사소통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폭력이 없으며, 노동이 평등하게 공유되는 가족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족관은 여성의 삶의 관점에서 관찰되거나 추론될 수 없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 내에 폭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노동이 당연시 되거나 평가 절하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은 또한 화폐의 가치로 전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는 가족 내에서 무시되고 간과된다. 이렇듯 하버마스의 이론은 평등한 가족관을 전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이 화폐와 권력의 체계를 가능하도록 정렬된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이론은 생활세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생활세계적인 노동은 간과하고 체계의 경제적 영역에서의 노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41) 하버마스에게, 문화는 지식의 저수지이며, 거기서부터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면서 합의에 의한 세계해석을 획득하게 된다. 이상화(1996), 414쪽.

42) Calhoun(1995), 205-207쪽.

맑스의 이론의 한계를 넘어 설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관점을 실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여성의 노동은 가족의 생활 세계에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지만, 맑스의 노동 개념⁴³⁾은 이런 여성의 노동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포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맑스는 그의 노동 개념을 통해 사회, 경제적 착취관계를 폭로하는데 집중했기에 말이다. 맑스와 달리 하버마스는 생활세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가족 내에서의 억압과 착취, 차별을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곧 생활 세계라는 등식이 온전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세계 개념을 통해서 가사 노동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여성의 지위나 가치가 유의미하고, 적절하게 평가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여성들이 처한 억압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생활세계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에 말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생활세계는 사람들이 의소사통을 매개로 해서 서로 문화적으로 익숙한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평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세계를 사회가 가진 선형적 인식 틀과 같은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생활세계가 가능한 의미와 내용의 선-객관적인 지평(the pre-objective horizon)을 제공하는”⁴⁴⁾ 한, 더 이상 생활세계와 체계의 이상성이나 추상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칸트가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경험에서 추상된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 인식 틀임을 논증한 것처럼,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도 사회의 병리 현상을 인식하게 하는 선형적 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선형적 틀은, 의

43) 맑스는 노동을 인류가 질료에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자 세계 내에서 인류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형상적”활동으로 보았는데, 세이어(Sayers)는 이를 노동 과정에 대한 “생산주의적”모델이라 한다. 이와 관련한 맑스의 노동 개념에 대한 논의는 세이어(Sayers 2007, 432-442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44) Finke(2000), 27쪽.

사소통 합리성을 사회와 인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가 가진 것이지만, 인간에게도 공유된다. 만약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칸트식의 시 공간 개념처럼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이 이해될 수 있다면, 그것들이 구체적인 사회관계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 공간 중에 현상이 있는 것처럼, 생활세계 중에 사회의 구조나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 세계 중에 사회의 구조나 관계가 있다면, “합리적 대화의 절차적 형식에 의해 걸러진 생활 세계의 배경지식이 전체 관심사를 아우르는 진행 중인 테스트에 제공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를 폭로하는 언어 시스템의 구체적 선형성(the concrete a priori of world-disclosing language systems)이 우리가 현세의 물질계(the intramundane)를 다루는 것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개정(an indirect revision)에 노출된다.”⁴⁵⁾

넷째, 켈훈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이 정체성이 정해져 있는 주체를 가정한다고 간주한다.⁴⁶⁾ 켈훈에 따르면, 비판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조직이나 문화에 그 자체로 긴장인 일종의 비-정체성이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근본적인 수준의 모순이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건이나 역동성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⁴⁷⁾ 아울러 켈훈에 의하면, 하버마스에게 “의사소통적으로 성취된 이해”는 주로 이미 정체성을 형성한 개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⁴⁸⁾ 이런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임무는 문화적 체계모니에 의해 확정된 일치에 관해 합리적인 비판을 허용하는 것일 뿐, 우리의 관심을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정체성과 관련된 정체성의 정치학으로 돌리지는 못한다. 더욱이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의 정체성과 항상 긴장 속에서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치

45) Finke(2000), 27쪽.

46) Calhoun(1995), 217쪽.

47) Calhoun(1995), 18쪽.

48) Calhoun(1995), 212쪽.

학으로서 기획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마땅히 정치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정체성을 정치적인 것이 논의되기 이전에 굳어진 것으로 다룬다.

비록 정체성은 항상 투쟁 속에 있으며 정치적이긴 하지만, 그런 정체성의 기획에 언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를 묻고 답하는 논증적인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정체성의 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의사소통 속에서 화자는 ‘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참여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출발점으로서, 그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나에 대한 인식이 발생한다. 이런 매커니즘을 통해 ‘나’는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재배치된다. 의사소통적 대화의 주체로서의 나는 대화를 열고 닫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변화되는데, 그러한 변화는 또한 나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대상으로 거듭나게 한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망 혹은 사회 속에서 이유를 묻고 답함으로써 나에 대한 자기반성 및 발전을 합리적으로 거듭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을 지닌 ‘나’는 어떤 실체적인 정체성을 담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이로써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지닌 ‘나’는 정체성의 정치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하버마스가 이미 주어진 정체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해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의사소통공동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이상적 의사소통공동체에는 자율적 행위를 기초로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자아정체성이 상응한다. 이것은 자신의 생활사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능력에서 입증된다.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 생활세계와 그런 생활 세계적 배경에 묶여 있

는 자신의 특성보다 더 뒤편에 설정하게 된다. 자아 정체성은—양립하기 어려운 역할기대들에 직면해서도, 그리고 일련의 모순적 역할체계들을 통과하면서도—일관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리하여 자기 재인식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추상적 능력을 통해서나 안정화될 수 있을 뿐이다. 성인의 자아정체성은 깨진 혹은 극복된 정체성들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건립하고, 그것을—자신의 슬한 상호작용들이 다른 사람의 경우와 혼동될 수 없으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생활사로 조직되도록—낡은 정체성들과 통합하는 능력에서 입증된다. 그러한 자기정체성은 자율과 자기실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⁴⁹⁾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버마스에게 정체성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에게 정체성은 언제나 반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에게서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한 관심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5.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앞서 차이, 전통, 이상화,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자격을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약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이상적 성격을 지닌 채 차이와 전통을 포섭하지 못하고, 정체성에 대한 경직된 관점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의 이론은 사회비판이론의 중요한 두 계기인 경험적 해명과 규범 제시를 포함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차이, 전통, 이상화, 정체성과 관련한 비판적 논의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이 사회비판이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 할 수 있었다.

49) 위르겐 하버마스(2006), 165쪽.

이제 이 절에서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사회비판이론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켈혼의 사회비판이론의 조건에 의하면, 사회비판이론은 사회의 병리를 인식하는 틀과 열려있는 규범 제시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해 하버마스의 생활세계개념 및 체계개념은 사회의 병리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토대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그러한 병리 현상에 대한 규범을 제시한다.

우선 병리현상 인식의 토대역할을 하는 생활세계와 체계 개념의 이해에 있어서, 생활세계를 가족과 같은 사회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계를 경제나 국가와 같은 사회 영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생활세계와 체계를 이해하게 된다면, 생활세계와 체계를 사회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비판이론의 계기를 상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세계와 체계의 개념을 사회의 영토처럼 이해하게 되면, 그러한 개념이 구체적인 사회와 일치하지 않는 이상화된 범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개념이 이상적이라고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론이 이상적인 성격을 계속 보유하고 있게 되면, 그 이론은 사회비판이론에서 중요한 경험적 구체성, 즉,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특수성을 포섭할 수 있는 국면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는 내재적 비판의 계기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가들이나 맑스 등이 비판의 범주를 물화시킴으로써 비판의 관점을 비판의 대상 외부에 놓아 버리는 우를 범한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비판의 관점을 취함에 있어 내재적인 관점이 아닌 이상화된 외적인 관점을 취한 이론은 탈맥락적이고 초역사적인 보편주의적 이론으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이와 관련해 맥카시(McCarthy)는 하버마스가 근대 서구의 합리성에 치우쳐 보편적 프래그마티즘(pragmatism)을 제안한다고 했다.⁵⁰⁾ 특히 언어 사용에 관한 초월 이론으로 이해되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규범 조건을 밝히려고 고안된 보편적 프래그마

티즘을 제공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건대, 실천적인 사회철학으로서의 사회비판이론은 어떤 이상적인 보편적 이론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프리가(Frega)는 듀이의 사고 노선에 따라 사회철학을 프래그마티즘의 관점에 따라 재정립함에 있어서, 프래그마티스트 사회철학(pragmatist social philosophy)은 이상적인 규범적 기준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신 프래그마티스트 사회철학에 의하면, 규범적 기준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기준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론가가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⁵¹⁾

이 때문에 생활세계와 체계는 사회병리 진단의 분석 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개념 틀 보다는 사회적 병리현상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의 선형적인 인식 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념 틀로서의 생활세계와 체계는 외재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인 반면 인식 틀로서의 생활세계와 체계는 내재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병리현상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비판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인식 틀로서의 생활세계와 체계는 하버마스의 이론에 사회비판이론의 위상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체계개념과 생활세계 개념이 사회의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는 틀이라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비판이론가들의 규범에 대한 생각에 의하면, 도덕성과 윤리적 삶은 철저히 분리된다.⁵²⁾ 하지만 도덕성과 윤리적 삶을 분리할 경우 개인의 도덕과 사회적 윤리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나 관심에 따라 개인의 도덕

50) McCarthy(1978).

51) Frega(2014), 66쪽.

52) 프리가에 의하면, 프래그마티즘과 비판이론 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전자는 도덕성과 윤리적 삶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으며 조화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도덕성과 윤리적 삶이 불연속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그것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 Frega(forthcoming), 3쪽.

이 정도됨과 동시에 사회는 그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내놓지 못하게 된다. 이에 프래그마티즘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하버마스는 도덕성과 윤리적 삶을 조화롭게 하려 했다. 즉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의 규범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하는데, 그런 합리성에 의하면, 개인의 자기의식이나 자기반성에 근거한 도덕성만으로는 보편적 규범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삶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비로소 보편적 규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이상적인 대화 상황을 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해 주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어떤 경직된 이상적인 대화상황을 규범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문화적 차이나 역사적인 특수성을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상적인 대화내용에서 어긋난 것을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폭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동시대적 생명력을 갖고 비판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문제의식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능력으로 이해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능력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규범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매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이해는 이익관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권력이 작용할 수도 있다.⁵³⁾ 만약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권력이 작용하게 되면,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도 절차적 중립성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권력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또한 권력 관계에 의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다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53) Calhoun(1995), 51-53쪽.

절차에 의해 개념화된 이상적인 대화 상황에 근거해서 논파될 수 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절차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때 검증과 반박에 개방되어 있는 의사소통적 구조와 발전이라는 보편적 성격을 이해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의사소통은 합의를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차이를 산출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사회진화의 촉매제일 수 있었던 것이다.⁵⁴⁾ 의사소통합리성의 표현은 차이를 배제하고 하나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름이 관찰 가능한 구별에 의한 상이한 맥락에 의존적인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차이를 지탱하는 절충과 타협의 절차와 규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⁵⁵⁾

아울러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정적인(static) 비판이론으로 이해되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비판이론을 정적인 비판이론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초역사적인 이론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더 이상 비판적인 힘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구체적인 사회적 담론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극복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보유한 역동적인 비판이론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진정한 비판이론의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묻고 답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명료하게 나타나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절차적 계기⁵⁶⁾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54) 정호근(1996), 138쪽.

55) 정호근(1996), 139쪽.

56) 하버마스는 철학이 도덕 관점의 명료화 및 민주적 합법화 절차의 명료화, 합리적 담론과 협상의 조건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아울러 하버마스는 민주주의를 다수의 규칙에 의거해 이해하지 않으며, 대신 그는 결과를 제약하는 조건이 담론의 절차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 절차는 올바른 대답을 보장할 수 없는데, 논쟁에 앞서 주어진 올바른 대답의 기준도 없기에 그렇다. Gledhill(2010), 228-236쪽.

6. 맺음 말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은 생활세계와 체계의 관점을 통해서 사회의 병리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안한다. 간단히 말해, 생활세계가 체계에 의해 식민화되는 것이 바로 사회의 병리이고, 이러한 병리 현상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 생활세계가 안정을 되찾아 감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차이를 포섭하지 못하고, 생활세계를 이상화 시키고, 전통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미 형성된 정체성을 가정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들은 하버마스의 이론의 일면만을 부각시켜 이해한 것이거나 오해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서 중요한 요소인 생활세계와 체계 개념을 어떤 고착화된 사회의 영토나 이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데서 비롯되거나 의사소통 합리성의 정적, 합리적 성격에만 초점을 둔데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생활세계와 체계의 개념을 어떤 물화된 것이 아닌 사회를 분석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비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어떤 실체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라기보다 절차적인 합리성으로 이해한다면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초월적인 보편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어떤 지점에 정박해 있는 정적인 비판이론으로 이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떤 상호작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장이 펼쳐지는 역동적인 비판이론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회비판이론의 계기를 가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지현 외. 2012.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서울: 사월의 책.
- 김원식. 2009. 「생활세계 식민주의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 『사회와 철학』. 제18호: 99-124.
- _____. 2012. 「하버마스—의사소통 행위이론과 생활세계의 식민주 테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서울: 사월의 책.
- 김 진. 2005. 「페미니즘 윤리학의 정초 논쟁」.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42: 71-97.
- 김 진. 2011. 「콜버그 대 길리건: ‘정의’와 ‘배려’는 도덕원리로서 양립가능한가?」. 『대동철학』 57집: 185-211.
- 박정호 외. 2006. 『현대철학의 흐름』. 서울: 동녘.
- 서도식. 2002. 「비판으로서의 근대 사회론—하버마스의 2단계 사회 구상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59집: 121-145.
- _____. 2006. 「사회비판의 전(前)과학적 심급」. 『시대와 철학』 제17권3호: 7-41.
- 선우현. 1996. 「근대성에 대한 반성적 통찰」. 『하버마스의 사상』. pp. 377-408. 서울: 나남.
- 양운덕. 1996. 「근대성과 계몽에 대한 상이한 해석: 하버마스와 푸코」. 『하버마스의 사상』. pp. 281-376. 서울: 나남.
- 양화식. 2008. 「생활세계, 체계 그리고 법—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법철학 연구』 제11권2호: 329-360.
- 위르겐하버마스.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2.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장춘익 옮김. 서울: 나남.
- 오명근. 1993a. 도덕 의식과 의사 소통 행동(1)—하버마스 담론 윤리론의 검토—〈인문연구〉 14권 2호: 175-199.
- _____. 1993b. 도덕의식과 의사소통 행동(2)—하버마스 담론 윤리론의 검토

- <인문연구> 15권 1호: 219-257.
- 이상화. 1996. 「하버마스의 사회분석틀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하버마스의 사상』. 409-440. 서울: 나남.
- 정대성. 2006. 「하버마스 철학에서 상호주관성 개념의 의미」. 『해석학 연구』 제17집: 185-212.
- 정호근. 1996.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권력 그리고 사회구성」. 『하버마스의 사상』. 123-146. 서울: 나남.
- Beilharz, P. 1998. “Calhoun’s Critical Theory”. *Thesis Eleven* 55: 97.
- Calhoun, C. 1995. *Critical Social Theory*, Blackwell.
- Czobor-Lupp, M. 2008. “Communicative Reason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 Critical Discussion of Haberma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7(4):430-448.
- Erman, E. 2006. “Reconciling Communicative Action with Recognition: Thickening the ‘Inter’ of Intersubjectivity”,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2(3): 377-400.
- Finke, S. R. S. 2000, “Habermas and Kant: Judgement and Communicative Experience”,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26(6): 21-45.
- Frega, R. 2014. “Between Pragmatism and Critical Theory: Social Philosophy Today”, *Human Studies* 37(1): 57-82.
- _____. forthcoming. “Beyond Morality and Ethical Life: Pragmatism and Critical Theory Cross Path”, *Journal of Philosophical Research*.
- Gledhill, J. 2010. “Political Theory and Social Practices: G.A. Cohen, Rawls, Habermas and the problem of self-grounding”, PhD thesis,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of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 Leonardo, Z. 2004. *Critical Social Theory and Transformative Knowledge: The Functions of Criticism in Quality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er 33(6): 11-18.

McCarthy, T. 1978. *The Critical Theory of Jurgen Habermas*, Cambridge, MA: MIT Press.

Sayers, S. 2007. "The Concept of Labor: Marx and His Critics", *Science and Society* 71(4): 431-454.

Shalin, D. N. 1992. "Critical Theory and the Pragmatist Challe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2): 237-279.

Zurn, C. F. 2005. "Recognition, Redistribution, and Democracy: Dilemmas of Honneth's Critical Soci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3(1): 89-126.

Habermas' Critical Theory as Critical Social Theory

Jo, Youngah (University of Seoul)

If critical social theory gives importance to the empirical explications of pathological phenomena of societies, it will become the radical relativism. On the other hand, if the theory gives weight to the alternative of the universal norms, it will degenerate into an ahistoric universalism. Thus, in order to avoid the radical relativism and ahistoric universalism, critical social theory should have the momentum both of empirical explication and normative alternative. Having this requirement for the critical social theory in mind, this paper will discuss whether Habermas' critical theory can be critical social theory. For this purpose, first, the condition of critical social theory by Calhoun will be suggested. Next, I will provide an explanation of what is Habermas' critical theory. And then, I will argue that Calhoun's criticism of Habermas' critical theory can be responded from Habermas' point of view. On the basis of these arguments, I will conclude that Habermas' critical theory can be critical social theory.

Main scope: Social philosophy, Critical social theory, Critical theory.

Key words: Critical social theory, Calhoun, Habermas' critical theory, Empirical explication, Normative alternative.

사회비판이론(critical social theory)으로서의 하버마스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 / 조영아

조영아 e-mail: lune211@naver.com

투 고 일	2014년 10월 20일
심 사 일	2014년 10월 30일
게재확정	2014년 11월 17일